

## 한국민중을 감동시킨 신운만회



지난 3 월 20 일, 신운예술단은 한국 대구시에서 연속 5 차례나 공연했다. “위풍 떨치는 전고”의 프로는 극장의 분위기를 고조제로 이끌었는데 워낙 내성적인 한국 관중들은 분분히 일어나서 신운예술단 파룬궁학원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호와 경의를 보냈다.



부천시 전임시장 조건호(趙健鎬) (왼쪽 사진)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춤을 추는 것

같아 공연이 갓 시작되었을 때에는 무척 흥분되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점차 녹아들었고 온화하고 상서로워졌습니다.> 고 말했다. 화가 김계희(金季禧)는 (왼쪽 사진) 자신의 마음을 말끔히 씻은 감을 느끼



었다. 화가 김계희(金季禧)는 (왼쪽 사진) 자신의 마음을 말끔히 씻은 감을 느끼

면서 순결한 동년으로 되돌아갔다. <마치 훨씬 높은 곳에서 순정한 시냇물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는데 그 위에 해빛이 비껴 깨끗하고 투명한 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진양유조선주식회사 회장 황경환(黃京煥) 선생은 <노래가수들은 다른 공간의 높은 층차에서 인간세상에 내려온 성악가처럼 생명의 귀의 정보를 이 혼잡한 세상에 전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인생을 회고하게끔 했습니다. 만회는 우리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이성적이고 더욱 도덕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94 세 고령의 할머니 도월인(都月仁)은 (왼쪽 사진) 공연을 보면서 줄곧 합장하고 격동되어 박수를 쳤다. 그는 <신운을 보게 되니 난 정말 복이 있소. 내가 신운을 보았으니 100 살은 더 살거요.> 라고 신심 가득히 말했다.

## 파룬궁학원에게 장미꽃을 드리다



국제암네스티 인권조직 프랑스청년부는

금년 3 월 27 일부터 파리에서 3 일동안 활동을 벌려 중국 정부가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고 인권을 개선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활동에서 국제암네스티의 요청을 받은 2 명의 프랑스파룬궁수련생은 중공의 박해를 받은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했다. 이 2 명 파룬궁학원들의 대선대인(大善大忍)의 마음에 감동된 프랑스청년나싸허와 아허노는 두송이 큰 장미꽃을 그들에게 선사하면서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다. <박해는 만리밖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는 전세계의 아픕입니다. 중공은 지금도 1 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권을 지키는 나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응당 인권수호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일떠나 박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 신운만회 비디오시디를 보았더니 유방종양이 소실되다

지난해 봄, 나는 한 친구에게 “9 평공산당”과 2007 년 전세계중국인신년만회의 비디오시디를 주면서 법륜대법수련중에서 나타난 신기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며칠전에 나는 이 친구를 만났다. 그는 말하기를 <작년에 나에게 준 신운만회 비디오

시디를 내 마누라가 여러번 보았어. 내 마누라는 예전에 유방종양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날 보고 없어졌다고 말하기에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물었더니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신운만회 비디오시디를 보았다고 말하더라구. 이 얼마나 신기한가. 신운만회를 보니 종류가 없어졌

단 말이네.>

한 가정부인이 신운만회를 보고 감동되었고 진상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복을 받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게 되었다.



# 아빠, 엄마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흑룡강성 이란현에서 살고 있는 7 살난 여자애 궁자(宫子)는 (왼쪽 사진) 늘 아빠와 엄마의 사진을 꺼내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궁자는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난 나의 눈물이 가득 찬 잔 하나를 드리겠어요. 아빠, 엄마 어서 돌아오세요! 난 지금 말을 잘 들어요.>



2006 년 12 월 12 일 파룬궁을 수련하는 궁자아버지 궁봉강(宫凤强)은 (왼쪽 사진) 경

찰들에게 붙잡혀 이란현간수소에서 박해로 정신의상에 걸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5 년판결을 받고 가목사시련강구감옥에 갇혔다. 궁자의 어머니는 핍박에 의해 외지에서 류리걸식하고 있으며 병든 할머니는 구들에 누워 온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으며 할아버지는 아들을 구하려고 공안국, 검찰원, 법원, 감옥에 다니면서 공소했지만 도리어 악인들의 랭대와 위협을 받았다.

궁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선량한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해줄 것을 청원하고 있으며 인간성이 없는 이러한 박해가 재빨리 결속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 경찰들을 쫓아버린 촌민들

지난 3 월 22 일 오후, 당 산시풍남구서호촌에 사는 농민 호인창(胡印仓)은 애타자촌에서 호신부를 주다가 리씨의 고발로 7 명 경찰들에게 집까지 끌려 와서 집수색을 당했다. 경찰들이 호인창을 붙잡아가려고 할때 그는 경찰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들과 집식구들이 죄다 좋지 않다고 알려주

었고 두 딸애는 아버지옆에 서서 붙잡혀가지 못하게 했다. 어느새 달려온 촌민들은 경찰을 보고 <뭘 하는 짓인가? 나쁜짓을 하면 보응을 받는것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경찰들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것을 보자 기가 꺾여 뿔뿔이 달아났다.



## 폭로 전국박해사례

최근에 파룬궁인권([www.falunhr.org](http://www.falunhr.org))에서 국제사회와 각국정부에 중공약물박해보고를 보냈다. 이 보고에는 청해성, 호북성, 산둥성 12 명 파룬궁학원이 간수소, 로교소, 감옥에 갇혀 약물박해를 받아 온몸이 쇠되되고 사지가 불구되고 정신의상에 걸리며 사망된 죄행을 폭로했다. 아래에 청해성의

약물박해사례 3 건만 들겠다.

▶ 장학봉(张学风), 녀, 청해성 녀자감옥에서 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주사를 맞고 정신의상에 걸렸으며 나중엔 사망되었다.

▶ 리원평(李元平), 녀, 청해성 계독교교소에 갇혀 흰 알약을 먹고 정신이 마비되었으며 반응과 기억력이 하강되었다.

▶ 평춘봉(平春峰), 남, 청해성 다바진로교소에 갇혀 독침을 맞고 독약을 먹어 정신이 황홀해졌으며 나중엔 사망되었다.

## 만화 최악의 교역—

###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

중공은 2001 년부터 료녕성 심양시쑤가툼과 길림시 672-S 등 전국의 36 개 집중영에서 대량의 파룬궁학원생체에서 심장, 신장, 간장, 눈각막 등 장기를 적출하여 외국에 고가로 팔았다. 이 최악의 교역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인성을 말살하는 중공에 대한 항의의 웨침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중공약당은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1. 강제로 피를 뽑아 생체장기저장고를 세웠다.



2. 중공관원과 의사들이 결탁하여 폭리를 얻었다.



3. 파룬궁학원생체에서 장기를 뽑았다.



4. 시체를 태워 흔적을 없앴다.